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0. 31 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박진호 / 서기관 박정용 (Tel. 044-200-2049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## 총리 주재로 첫 번째 부총리 협의회 개최

- 경제·사회·외교안보 등 분야별 국정 현안 매일 챙기기로
- “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대외신인도 관리 필요성” 강조
- “국민 의혹 해소하기 위한 이대 특별감사, 문체부 사업점검 철저 실시” 지시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0.31일(월)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, 경제·사회 부총리와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‘부총리 협의회’를 개최하고, 당면한 국정현안을 논의하였다

\* 참석대상 : 경제·사회 부총리, 외교부·국방부·행자부 장관

□ 황 총리는 “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6 호국훈련(10.31~11.6) 등 외교·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.

□ 또한, “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”고 말하며,

○ 참석 장관들에게 “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, 대외협력·교류, 투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”고 강조하였다.

-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**국회 예산 심사**와 관련하여,
  - “일자리 등 **민생관련 예산**이 **원안대로 통과**될 수 있도록 **관계 부처와 협조**하여 **국회 설명과 설득**에 노력해 달라”고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민생안정을 위해 금일 발표한 ‘**해운·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**’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, ‘**부동산 안정화 대책**’의 면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.
- 최근 의혹과 관련하여서는, “금일부터 시작되는 ‘**이화여대 특별감사** (10.31~11.11)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논란과 의혹이 없도록 **엄정하고 철저히 실시하라**”고 사회부총리에게 지시하였다
  - 또한, 문체부에는 “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**의혹**이 제기되는 소관 정책·사업을 **종합적으로 철저히 점검**하고 **엄중히 조치하라**”고 지시하면서,
  - “**문화예술 관련 정책·사업**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**고부가가치 사업**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는 지난 10.29(토), ‘**국무위원 간담회**’ 후속 조치 사항이며, 앞으로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모여 **국정 주요현안**을 논의할 예정이다.